

■ 훌륭한 의사를 기르는 인적환경

- 사례에서 구조까지 -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과 류숙희

Human Environment for being a Great doctor
- from case to construction -

Soo-hee Ryue, Ph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

Human Environment for being a Great doctor - from case to construction -

Purpose : How can be a great doctor with excellence and ethics? In this study, I want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environment to make a great doctor.

Methods: First, I researched factors and construct of the human environment. So I conceived a model for analyzing human environment with two

construction model: Howard Gardner's System Model and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model. Second, I analyzed the life of the Oliver R. Evison M.D. and Ki Ryu Jang M.D. Oliver R. Evison was the pioneer of medicine of Korea and establisher of the Severance Hospital and medical college. Dr KiRyu Jang, who was called 'Schweitzer of Korea', was a good doctor of the poor and weak patients in Korea. Third, I tried to find out a new human environment model to make a great doctor.

Results : One model for analyzing human environment was made of relationship based on emotion, relationship teaching knowledge and skill, and relationship communicating on value. In the light of analyzing of two

교신저자 : 류숙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20-75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전화 : 02-2228-2513, 팩스 : 02-364-5450
Email : ryueedu@yuhs.ac, ryue6@paran.com

great doctors, Oliver R. Evison M.D. and KiRyu Jang M.D, I found out special interrelationship, Hardie, Allen, Severance for Evison, Kyosin Kim, Kyucheol Choi etc. for Ki Ryu Jang. These special people were religious actors or social thinkers.

Conclusions: To be a great doctor to excel and innovate medical field, medical students should have the chance to meet with people based on religious, ethical and social action, discuss on value across social fields, and can construct the idea to make and realize higher value of medical action. In sum, another important human environment for medical students would be a person who could be communicate with true value.

Key Words: Great doctor, human environment, medical education

서 론

훌륭한 의사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의료에 관한 유능성과 윤리성을 겸비하고, 의학분야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M. Csikszentmihalyi, W. Damon, or H. Gardner, 2001)가 되기 위해 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하고, 의학교육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의사를 기르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1895년 예비슨이 그레이 해부학 교과서를 우리나라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이래 100년 남짓이 흘러 2004년 한 해만 해도 의학 관련 역, 저서는 약 600권(대한출판문화협회, 2004)이 발간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의과대학생은 대략 230학점, 3500시간 정도를 의사로서의 지식과 술기를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적, 시간적 환경 속에서 의과대학생들은 교육환경이 훨씬 열악했던 100년 전, 5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의사로 성장하고 있는가? 현재의 의과대학생들은 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 및 능숙한 술기, 이에 따른 적절한 판단 그리고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포함한 윤리의식을 가진(류숙희·전우택 2007), 걸출한 의사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좋은 의사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의학의 큰 스승, 올리버 예비슨 선생과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선생이 좋은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요소 혹은 그 배경을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환경은 인간의 특성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해주며, (B.S. Bloom), 인간의 흥미나 태도 등의 성격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정원식, 1989a).

이 글에서는 먼저 교육적 환경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경받는 두 의사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여,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하는 인적환경의 구조를 추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고자 의대생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의학교육자는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인적 환경에 관한 분석들

일반적으로 인적 환경을 포함한 교육적 환경의 요소는 가정, 또래, 학교인사라고 이야기한다(정원식, 1989b). 이 중에서 가정은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이다. 가정환경의 구성 요인 중 가족성원과의 관계, 성격, 가정 분위기 등이 포함되는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은 사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원식, 1989b). 그동안 부모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있는 양육방식과(McCord, McCord, & Zola, 1959),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West & Farrinton, 1977)이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었다. 또한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부적인 영향과 동시에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다(홍성열, 1996).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10여년 이상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문화 및 교사, 행정가들의 영향 역시 의미있는 환경요소로 작용한다. 교장, 교감, 일반교사 및 학교사무원 및 행정가 등의 행동과 태도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이며 무엇이 될 것이며, 사회가 어떤 역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주요한 메시지를 제공한다(정계숙, 1984).

가정, 동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현재 의과대학생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의과대학생의 회고¹⁾를 살펴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외삼촌께서 흉부외과의를 하고 계신다. 몇 년 전 외갓집에 모든 친척들이 모였다.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벽 3시쯤 외삼촌께 호출이 왔다. 외삼촌께서는 장기이식센터의 일도 맡고 계셨는데 뇌사자가 발생해 장기적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전화통화를 끝내시고 얼른 옷을 챙겨 입으시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다. 나에게 그 때 일은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자기 일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전 각막에 심한 통증을 느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현재 안과 전공의 3년차인 선배의 모습은 평소에 접했던 모습과 매우 달랐다.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과 내에서 선배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나는 이런 선배에게서 의사로서 진료에 충실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 수 있는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나 선배가 자신이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의과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변의 인적 환경으로부터 좋은 의사가 되도록 동기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적환경이 한 의대생이 평생을 걸쳐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매진하기에 충분한가? 혹은 이와 같은 가족이나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우연한 기회를 갖지 않은 의대생은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없는가?

이에 대해 의미있는 답을 찾기 위해 주변의

1) 여기에서 인용하는 의대생들의 경험은 2007년 1분기 수업 '의료와 사회' 총론수업을 들은 연세대

학교 의과대학 본과1학년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에 나타난 회고내용이다.

인적 인사 및 요소들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인적요소들의 관계와 역할을 명료히 할 때, 행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인적환경이 교육요소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의 여러 요소를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구조 이론은 두 가지가 있다. 가드너의 비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이론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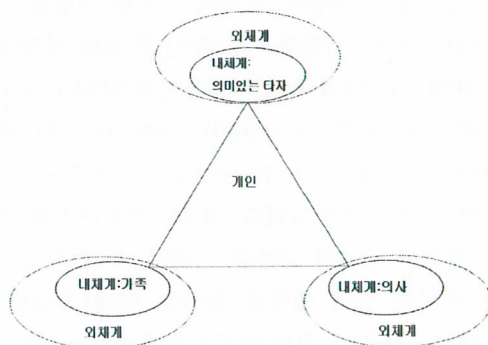
가드너(Gardner, 1993)는 해당 분야의 비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생애 속에 일어나는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그의 여러 연구(Gardner, H., Csikszentmihalyi, M., & Damon, W., 1998; Gardner, 1994)에서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인적환경'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개되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에서 영향 받고, 영향을 주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면, 심층적인 교육적 상호작용을 추리할 수 있게 해준다(문용린 외, 2004).

또 하나 구조에 관련된 이론은 브론펜브레너의 '인간발달생태학(ecology of development)'이론인데, 그는 성장하는 인간 유기체와 그가 살고 있는 변화하는 환경사이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이두연, 2001). 브론펜브레너(1971)은 맥락내의 발달(development in context)을 강조하는데, 이 맥락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세 가지 차원, 즉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형태로 존재한다.

미시체계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족,

친구들을 포함한다. 외체계는 개인과는 직접적인 상관없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상호작용하는 부모나 인사에게 영향을 주는 다소 먼 친척, 이웃, 가족의 친구, 대중매체, 사회 복지 및 법률 등이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개 이상의 미시 체계들간의 관계로 개인이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가는 시점, 즉 생태적 전이(ecological transition)가 일어날 때 생긴다(Bronfenbrenner, 1977: 이두연, 2001).

인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두 구조 이론을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적환경 구조의 분석 틀

세 종류의 내체계와 그들을 둘러싼 외체계,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중간 체계로 모형화할 수 있다. 가족과 관련된 내체계는 주로 개인이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인적 배경이며, 자신이 주로 수련을 하고 있는 직업 관련 분야의 내체계는 지식과 술기를 공유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인사(人士)인 의사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체계인 '의미있는 타자'는 혈연 및 직업에 관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로서, 자신이 끊임없이 가치와 윤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더 큰 사

회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사들이다.

사례분석

이하에서 위의 분석들에 따라, 에비슨과 장기려의 생애를 고찰하여 훌륭한 의사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 인적 배경과 그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생애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은 개인의 삶의 전기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러 연구(Gardner, 1993; 1996; 1997; 문용린 외, 2004 등)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인물의 지적 강점과 특별한 성격, 특이한 성장 환경, 가족이나 친구, 스승과 같이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 개인이 지적 강점을 발휘하는 '특정 영역'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문화 환경인 '분야' 등에 대해 분석하여, 한 사람이 위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올리버 R. 에비슨(Avison, Oliver R. 1860-1956)은 의료선교사로 어비신(魚丕信)이란 한국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장을 비롯하여 연합의학교 초대교장 등 개화기에 한국에 온 초기 의사(1893-1934)로서 많은 공적을 남겼다(Clark, A. D. 1979). 에비슨의 생애를 네 단계, 즉 아동기, 의사훈련기, 의사시기, 의학교육자 시기(류숙희, 2007)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그의 주변의 인적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기(1860-1878: 1-18세). 에비슨은 1860년에 영국 요어크셔주에서 출

생하였지만, 6세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랜포드로 이사하였다. 웨스턴 초등학교시절에, 위험한 사고로 죽음을 경험하고,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주면서,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을 지킨 것에 대한 기쁨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 주변 어른, 예를 들면 약대신 별로 효과가 없는 약초를 발라준 아주머니, 아들의 안전을 부탁한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 특별한 정서적 경험을 했다. 이들은 에비슨의 아픔과 생명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사로서의 훈련기(1879-1887: 19-28세). 이 시기에 에비슨은 스미스 폴즈 약국에 취직을 하여, 약사로서 경력을 시작한다. 곧 온타리오 약학대학(The Ontario of Pharmacy) 입학후 3년후 졸업을 하고, 다시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평생의 조력자이자 동지였던, 제니 반즈(Jannie Barnes)와 결혼한다. 이 시기에 에비슨의 주변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그에게 약학 및 의학공부를 계속하도록 격려한 여러 스승과 그의 재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 약사 및 교수 들이다. 그들로부터 유능한 의사가 가져야할 지식, 태도 및 술기를 습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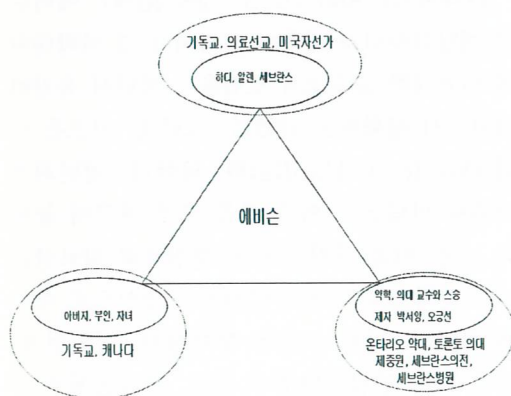
의사시기(1880-1915 : 28-40세). 에비슨은 개업의사이자 대학의 외과의사 및 약학대학과 의과대학 교수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유망한 의사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즈음 만난 하디(R. A. Hardie)와 의학기독교청년회조직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를 계기로 미국 북장로회 의료선교사의 자격으로 의료의 미개척지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동학항쟁, 청일전쟁, 을미사변, '한일합방조약' 공포, 조선총독부 설치, '105인 사건', '신민회 사건'을 겪으면서 지

난하고,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에비슨은 이러한 시기에 부산항에 도착하여 조선에서 고종의 시의이자, 콜레라 퇴치에 진력하고, 제중원의학교를 설립하고,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의 철강회사 사장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를 설득하여 1만 달러 기부금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고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설립하였고, 제중원을 세브란스 의학교로 이름을 고치는 등의 의료교육 및 개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의학교육자 시기(1916-1935: 41세-60세). 에비슨은 41세부터 한국에 머무르는 60까지 의학교육과 관련한 많은 업적을 남긴다. 그는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겸임하면서, 세브란스의 전의 운영을 통해 병원과 의학교육의 근간을 건실하게 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직을 오궁선에게 인계하고, 한국 의학을 한국인의 손에 맡기고 은퇴하였다.

한때 캐나다의 작은 공장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어린 소년 에비슨이 수십 년 후 일제강점과 개화로 몸살을 앓고 있던 한국 의료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의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관통하는 인적환경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에비슨 주변의 인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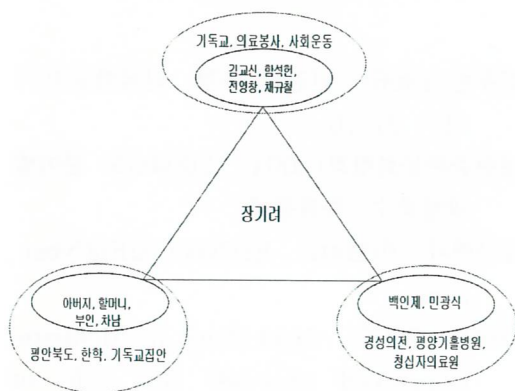
장기려는 1911년, 한일 병합 조약을 맺은 국치년 다음 해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의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서울대학교 등에서 후학을 길렀으며,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과 무료진료소를 세우는 등 많은 공적을 남긴 의사로서 존경을 받는다(지강유철, 2007). 그의 생애를 세 단계, 즉 아동·청소년기, 의사수련·활동기, 의료봉사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그의 주변의 인적 환경을 구분해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기(1911-1927: 1세-16세). 장기려는 한학자였던 아버지 장운섭(張雲燮)과 정열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던 할머니 이경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지강유철, 2007). 1923년 신의주고보의 입학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장기려는 개성의 송도고보에 합격하여 입학했다. 장기려는 진로에 관해 여러 모색을 하던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수업료가 적은 경성의전에 입학했다. 그에게 의학공부는 우연히 다가온 기회였다.

의사수련 및 활동기(1928-1950: 17세-39세). 장기려는 1928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약 5년후에 경성의전을 졸업하였고, 김봉숙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곧 평양의 기흥병원(연합기독교병원)에서 일하였다. 1942년부터는 “농흉(農胸)에 관한 세균학적 연구”를 ‘조선의학회지(朝鮮醫學會誌)’에 기고하는 등의 학술활동을 하였다. 해방후 장기려는 공산정권아래에서, 김일성대학의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로 일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성심을 다하여 공부하였고, 김교신, 함석헌, 야나이하라 다다오 등과 교제를 이어갔다. 그들은 신앙의 진실된 실천에 평생동안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었다.

의료봉사기(1951-1995: 40세-84세). 장기려는 1950년, 6·25가 발발하자 평양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여, 부산의 제3육군병원에서 약 6개월 동안 봉직하였다. 그리고 1951년 한상동 목사와 전영창의 요청으로 무료의원을 시작하는데, 이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 병원, 복음병원의 시작이다. 장기려는 복음병원에서 일하면서 서울의대, 부산의대, 카톨릭의대의 외과 교수 및 학장으로 후학을 가르쳤고, 1959년에는 간의 대량절제수술을 성공하여 중요한 기여를 하여, 대한간학회는 이 날을 기념해 10월 20일을 '간의 날'로 정했다고 한다. 1959년에는 일신병원장 메켄지(Dr. Helen Mackenzie)등과 함께 '부산기독의사회'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1968년에는 채규철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과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부산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5년청십자의료원을 설립해 직접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장미희(간질환자 치료모임)을 창설, 부산 생명의 전화를 설립하였으며, 장애자재활협회 부산지부를 창립하는 등의 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때 교사를 꿈꾸었던 소년 장기려는 우리



〈그림 3〉 장기려 주변의 인적환경

나라에 봉사와 헌신의 의료를 꽃피운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하였으며, 그가 한 사람의 훌륭한 의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관통하는 인적환경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에비슨과 장기려의 생애를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한 어린이는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정, 같은 연령대의 또래, 교사 및 학교 행정가들로 구성된 학교, 그리고 나이는 다르지만 지적,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의사로 성장할 어린이는 의사직을 가지도록 동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기치 않은 우연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다. 많은 현재의 의과대학생들이 우연히 의사가 되도록 동기화되었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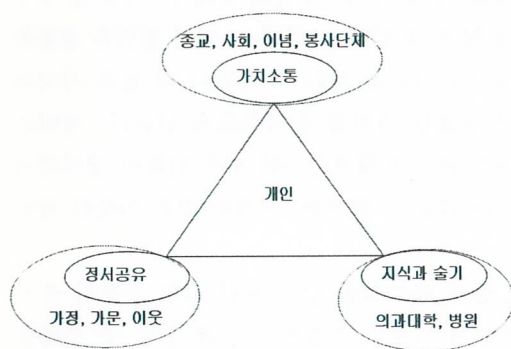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적인 행운보다 자기가 선택하고 교섭한 특별한 인적환경과의 연결이다. 생애를 통해 보다 더 의미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격려하고, 자극해주는 특별한 인적 집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인적집단은 가정, 학교, 또래, 친구, 우연히 알게 된 사람 등 누구나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인적 집단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개인이 더 높은 가치와 더 중요한 가치를 응시하도록 만든다. 에비슨에게 하디나 세브란스와 같은 인물이 장기려에게는 김교신, 함석헌, 전영창 같은 인물인 것이다.

물론 유능성을 얻기 위한 고된 공부와 술기 훈련의 기초는 성실한 스승과 동료 및 선배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의사직을 수행하기에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분야의 범위를 개척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로의 지향과 그와 같은

일을 하려는 의업내외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들과의 교류는 고립되지 않은 의료 분야를 만들게 해주고, 의료분야의 끊임없는 확장과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의료와 사회의 끊임없는 창조적 교섭의 연결고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적집단이 더 훌륭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결론

어떤 인적환경이 한 의사지망생에게 영향을 주어,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생동안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게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이었다. 인적환경의 요소 및 구조에 대한 고찰 및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사 에비슨과 장기려의 생애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의사를 기르는 인적 환경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그림 4〉 훌륭한 의사를 기르기 위한 인적환경의 구조

사실 모든 의대생들은 그림에서 보듯이 가족에 속해있으면서, 동시에 의료분야와 의과대학에 속해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치를 생성

시키고, 더 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의대생들은 더 큰 사회와 교섭하여 더 큰 가치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있는 만남을 가져야 하며, 이와 같은 자극과 기회가 의대생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에비슨이나 장기려는 의업을 사랑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의학이 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도록 자극하는 의미 있는 가치소통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상담을 해주는 교수와 멘토의 필요성 및 가치관교육의 중요성(전우택, 2006),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중요성(양은배, 2006)에 대한 지적이 이미 있어왔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있는 타자와의 가치소통관계'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의과대학내에서 학생을 위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의대생은 이 사회의 일부임과 동시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헌(1966). 인간의 유형. 건국학술지 7 (1): 21-70.
- 대한출판문화협회(2004). 2004년도 분야별 발행종수. 출판통계.
- 두산백과사전(2007). EnCyber &EnCyber.com.
- 류숙희 (2007). Good Work in Medicine Conceived through the Life of Oliver R. Avison M.D. of Korea. 을

- 리버 에비슨의 삶을 통해 생각해보는 좋은 의사로서의 활동. 2007 유럽의학교육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 류숙희, 전우택(2007) 의과대학생의 좋은 의사로서의 역할 및 자기진로에 대한 인식 분석 연구 -의사역할과 진로선택 사이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제 21차 의학교육학술대회 : 의학교육에서 학습부진의 현상과 대책. 포스터발표논문. 한국의학교육학회.
- 문용린, 홍성훈, 류숙희(2004). 백범 김구의 형성과정 탐색: 한 위인의 다중지능 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
- 양은배(2006). 의과대학생의 미래와 진로지도. 의학교육, 그 본질과 새로운 지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년 3월 23일(목) 13:30-17:30. 연세대학교 알렌관 무악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 이두연(2001), Bronfenbrenner의 미시-거시 환경 변수와 아동의 집단 따돌림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석환(1999). 이야기심리학의 심리전기적 인간탐구 방법론 연구 A Study on Psychobiographical Method in Narrative Psychology, 신학논단, Vol.26.
- 전우택(2006). 의과대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의 새로운 모색 - 2005년도 학생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의학교육, 그 본질과 새로운 지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년 3월 23일 (목) 13:30-17:30. 연세대학교 알렌관 무악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 정원식(1989a).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정원식(1989b). 현대교육의 심리학. 서울: 교육출판사.
- 지강유철(2007). 장기려, 그 사람. 홍성사.
- 홍성열(1996).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인적, 환경적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의 비교. 矯正研究, Vol.6 No.1.
- Bloom(1964) Bloom, B.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64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6 (pp.187-251). Greenwich, CT: JAI.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2nd ed., Vol. 3). Oxford: Pergam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ISBN 0-674-22457-4
- Gardner. H.(1993). Creating Mind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1994). The Arts and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1996). Leading Minds: An Anatomy of Leadership. Perseus Books Group(이종인 역. 20세기를 움직인 11인의 휴먼 파워. 살림. 1997).

- Gardner, H.(1997). *Extraordinary Minds* (문용린 역. 비범성의 탐구. 해냄 출판. 1999).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Csikszentmihalyi, M., & Damon, W.(1998). *Goodwork: when excellence and ethics meet*(문용린 역. 2003. *Goodwork: 훌륭한 직업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의 나무*). New York: Basic Books.
- McCord, J. McCord, W. & Zola, I. K. (1959) *Origins of crim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st, D.J., & Farrington, D.P.(1977). *The delinquent way of life*. London: Heinemann.